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이디 세발자전거 유모차 '맘디 트라이크'

# 보채는 아이도 '울음 뚝' ... 타는 게 즐거운 유모차

유모차는 육아 필수용품으로 꼽힌다. 엄마들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기저귀와 집 가방 등을 싣고 다닌다. 아이 연령과 용도에 따라 두세 대씩 보유하기도 한다. 아이가 유모차를 싫어하면 문제가 생긴다. 대개는 안아주며 어르고 달랠다가 다시 태우기를 반복해야 한다. 정병천 이디 대표는 아이가 타고 싶어 하는 유모차를 떠올렸다. 정 대표는 "기존의 유모차와 달리 아이가 즐겁게 탈 수 있는 유모차라면 엄마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디는 지난 6월 유모차 겸용 세발자전거 '맘디 트라이크 프리미엄'을 내놓았다.

아 세발자전거는 클러치가 없거나 부분 클러치를 사용, 바퀴와 페달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이 발이 페달에서 떨어지면 발목이 꺾이거나 발이 굽힐 우려가 있었다. 맘디 트라이크의 페달은 일반 자전거 방식과 똑같다. 바퀴가 굴러가도 발을 구르지 않으면 페달이 돌아가지 않는다. 짐을 놓는 공간을 마련하고 가방

## 페달에 안전클러치 '특허' 아이 발 다칠 염려 없어

## TV홈쇼핑 첫 방송서 완판 중 수출위해 인증 절차

◆안전성과 편의성 두루 갖춰 이디의 영유아용품 전문브랜드인 맘디는 '엄마의 기쁨(맘스 딜라이트)'이라는 의미의 줄임말이다. 첫 제품인 맘디 트라이크는 아이와 엄마가 같이 즐겁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서울과학기술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유모차와 세발자전거의 기능을 모두 고려, 안전성과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유모차와 세발자전거 복합 제품 개발을 위해 등록·출원한 특허만 6건이다. 바퀴와 페달을 연결하는 부분의 '안전 클러치'가 핵심 특허 기술이다. 일반적인 영유

고리도 달았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 앉는 의자 부분도 10c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연내 TV홈쇼핑 진출 올해 초 TV홈쇼핑에 맘디 트라이크가 첫선을 보이자 반응은 뜨거웠다. 준비한 물량은 방송 시작 한 시간여 만에 모두 팔렸다. 이디는 홈쇼핑 판매에 이어 대형마트 입점과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중국에서는 연내 홈쇼핑 판매를 앞두고 있다. 중국 내 전국 방송망을 갖춘 홈쇼핑 채널과 판매계약을 마치고 중국강제인증(CCC)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판 KS 마크인 CCC는 필수적인 품질인



정병천 이디 대표가 안전 클러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전 관련 인증제도다. 중국 내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CCC를 받아야 한다.

정 대표는 "중국 홈쇼핑을 시작으로 대형마트와 전문점까지 판매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출이 본격화되면 연 매출도 30억~40억원 수준에서 3년 안에 3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속 제품도 부가 기능을 추가한 '디럭스' 제품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이디-맘디 트라이크 프리미엄 (031)591-0253 △인텍-후아 마스크 (063)212-1539 △루미컴-눈의 피로감이 적은 풀리커 프리 친환경 LED 조명 (063)211-3223 △무지개연구소-올인원 스마트 드론 메인보드 블루비 010-6755-7455

품 유통으로 사업을 시작해 1998년 전문완구매장인 '도이탑'을 661㎡(약 200평) 규모로 열었다. 현재는 매장 규모가 두 배(1653㎡) 이상으로 커졌고 취급 품목도 10만여개로 늘어났다. 정 대표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명품 영유아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 "불황때 투자로 성장동력 확보"

중소인 한마디 황을문 서린바이오 회장



이오 관련 시약, 기기, 소모품, 원재료 등 '바이오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다. 그는 "미래

"불황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본사를 둔 서린바이오사이언스는 총 2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시 동탄첨단산업단지 내 제조 및 연구시설인 '서린 글로벌센터'를 짓고 있다. 내년 3월 완공될 이 센터는 대지 2640㎡, 연면적 1만2540㎡ 규모로 자체 생산 시설은 물론 서린바이오가 투자한 피부미용기기업체 서린메디케어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황을문 회장(64·사진)은 "경기 침체기엔 기업들이 움츠리고 투자를 줄이는데 오히려 미래 먹거리를 찾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센터는 바이오 장비 연구 및 제조시설 등을 갖춰 글로벌화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모임인 자중회 회장(2013~2105년)을 지낸 황 회장은 1984년 창업한 이후 32년째 바

먹거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기업도 입주시켜 이들과 협업해 상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창업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아니라 경영전략, 기업문화 등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것이다.

서린바이오사이언스는 웃음특강과 연수를 통해 '웃음경영'을 실천하는 등 독특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 웃음은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생각에서다. 직원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은 덩이다. 이런 기업문화도 다른 회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황 회장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며 "불황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손실 막았는데 혈값 매각이라니..." 강남훈 홈앤쇼핑 사장의 '이유있는' 항변

(에스엠면세점 지분)

현장에서 안재광 기자 중소기업부



강남훈 홈앤쇼핑 사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섰다. '에스엠면세점 지분을 혈값에 처분했다'는 게 이유였다. 홈앤쇼핑은 2014년 8월 에스엠면세점 법인 설립 때 4억 원을 출자한 뒤 이듬해 10월 같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은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기 전에 주식을 샀는데 사업권 확보 뒤 같은 가격에 매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금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인 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어야 했다는 얘기가었다. 강 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제대로 따져

보라"고 항변했다. 홈앤쇼핑이 당초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최대주주 중소기업중앙회 때문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주도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홈앤쇼핑을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중견기업 하나 투어가 이 사업을 이끌고 가게 된 것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뒤로 빠지자 홈앤쇼핑은 면세점 사업에 참여할 '명분'이 없었다.

추가로 자금을 출자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에스엠면세점은 네 차례 유상증자를 했고 주주들에게 출자를 요구했다. 홈앤쇼핑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주저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한 주주 관계자는 "인원 공황 면세점은 막대한 수수료 부담 탓에 이익을 내기가 어려웠다"며 "시내면세점 또한 롯데, 신세계

등과 경쟁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우려한 대로였다. 에스엠면세점은 작년 약 6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상반기 1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지난 5월 시행한 유상증자 때 대현회계법인인 에스엠면세점의 주당 가치를 3872원으로 평가했다. 액면가(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 가격만 놓고 보면 홈앤쇼핑은 '혈값'이 아니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회사의 주식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한 셈이다. 강 사장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홈앤쇼핑에 명백한 손해를 입혔어야 하지만 반대로 손실을 회피했다.

손해를 입혀줬다는 '독기'도 불분명했다. 면세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누군가에게 이득을 줬다는 정황이 밝혀진 게 없어서다. 강 사장의 '항변'이 '변명'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ahnjik@hankyung.com

# 한미약품 폐암 치료제 '올리타' 허가 취소되나

식약처, 오늘 후속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제 '올리타' (제품명 올리타)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 판매 중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올리타와 중증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추가안

전조치를 결정한다. 식약처는 지난 달 30일 올무티닙의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731명 중 3명에게서 피부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나 신규 환자 처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의 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판매 중지나 허가 취소 등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식약처

에 자문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치료제와 부작용 간의 상관관계, 효능 대비 부작용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한국OGK 사이클용 헬멧

한국OGK가 로드용 하이엔드 헬멧 '제나드' (사진)의 신규 색상 3종을 내놓았다. 새롭게 추가한 색상은 블레이크실버, 트래드블루, 트래드엘로 등이다.



통풍성을 높인 제품이다.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에어채널을 넣

어 시원한 공기를 내부로 잘 전달하고, 헬멧 내부의 더운 공기는 외부로 쉽게 배출한다.

이번 제품은 한국인의 두상을 고려했다. 다이얼을 돌려 4단계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가 착용감을 조절할 수 있다.